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10월 25일(금)  
--(음력 9월 23일)--  
Пятница  
25 октября 2024 г.  
№ 42 (12109)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10월의 마지막 일요일은 러시아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날로 기념한다.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날이다.

'에코 시티'회사는 쓰레기 수집 및 운송 하는 회사다. 안동순 씨와 김정금 씨는 경험이 많은 베테랑 수준의 운전기사들이다.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이며, 사회에서 중요한 일로 존경을 받고 있고, 얼마 전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의회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예식기자 촬영)

## 리마렌코 주지사, <월나>수상스포츠 종목 센터에 대해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

10월 17일(목) 스포츠부의 투자계획과 '가스프롬 -아동들에게' 사회적 기획의 일환으로 2024년에 완공된 새로운 스포츠 시설에 대해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화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화상회의에는 대통령 보좌관 알렉세이 주민과 러시아 스포츠부 미하일 쟁차료브 장관, 지역의 수장들이 참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올해엔 많은 지역들에서 완전히 새로운 현대적 스포츠 시설들이 개장되었다. 이 기회를 빌어 지역 정부와 개인 투자자들을 포함해 이러한 시설들의 건설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대규모 건설작업과 스포츠시설의 접근성 향상과 건강한 생활방식의 대중화와 활동적인 여가활동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 되도록이면 모든 성인들을 비롯해 아동과 청년들, 더 많은 러시아 국민이 자신을 위해 가치있는 것을 선택하고, 우리나라의 전 국민이 정기적인 스포츠 활동과 체육문화를 위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은 직접적으로 주민 생활의 품질과 기대수명과 우리 국민의 건강과 향후 인구학을 결정할 뿐만 아

니라 국가의 주권과 국력을 결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스포츠 제반시설을 발전시켜야 한다. 최근에는 정기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하는 국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이 정도의 달성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계획상 무엇보다 소도시들과 마을들에 대해 연방자금의 지원으로만 350개의 스포츠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는 <월나(파도)>수상스포츠 종목센터의 개장과 더불어 발전 계획에 대해 대통령에게 극동지역 스포츠시설 중 가장 시설이 잘 갖추어진 하나로 올해 가스프롬 회사의 지원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운영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두 달 전에 우리 지역에는 올림픽 수준의 수상스포츠 종목센터를 개장했다. 이는 사할린으로서는 빛나는 사건이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스포츠시설을 건설한 적이 없으며, 극동지역에는 이와 유사한 센터가 아직 없다. 이제 싱크로나이즈(수중 발레), 수구, 다이빙 등, 우리에게 새로운 스포츠 종목들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바로 이곳에서 국가대표팀을 위한 선수들을 훈

련시키고, 전국 및 국제적인 수상스포츠 종목의 경기를 개최할 것이며, 세계 및 유럽 챔피언인 유명 스포츠선수들을 영입해 아이들을 훈련시킬 계획이다. 수상스포츠 종목센터는 1일 15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고, 현재 우리 지역 주민의 67%가 정기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는 가장 스포츠적인 지역들 중 하나임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화상회의에서 우화에서는 카누 조정 종목을 위한 종합시설 시행작업을, 뽀체캄스크에서는 새로운 '암피비아' 수륙 양용 스포츠시설을, 페름 지역에서는 '에네르기야' 다기능 스포츠단지에 대해, 드제르윈스크에서는 맞춤형 스포츠 종목에 따른 지역 스포츠 훈련센터에 대해, 툴라주에서는 '툴리짜' 다기능 스포츠단지에 대해 보고했다.

러시아 연방 스포츠부의 미하일 쟁차료브 장관은 2019년부터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연방 기획의 일환으로 549개의 스포츠 시설 개발을 위한 건설을 시행하고, 올해는 47개 시설들이 건설되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4년간 연방예산에서는 스포츠 제반 시설 개발을 위해 1,600억 루블리를 배정했다.

## 단신

### 사할린한국교육원, 러시아 소재 한국교육원 원장 워크숍 진행

2024년 10월 23일(수)부터 25일(금)까지 러시아 소재 4개 한국교육원장 워크숍이 사할린한국교육원에서 진행된다.

워크숍의 주목적은 한국교육원 간 정보 교류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안과 애로 사항에 대한 대처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 것이다.

더불어 사할린 한인 징용의 역사를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 코르사코브 망향탑과 미즈호 마을 희생자 위령비 참배도 포함되어 있다. 워크숍은 사할린 한인문화 센터 내, '사할린 희생 사망동포 위령탑'과 '사할린한인 이종징용 광부 피해자 추모비' 참배로 시작했다.

### 유즈노사할린스크, 특수아동들 대상 <노래하는 섬> 경연 열려

10월 19일(토) 제 7회 <노래하는 섬> 연례 경연대회가 시작되었다.

이에 6세부터 18세까지의 장애아들이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하다.

2024년 경연에 사할린주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록적으로 25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51개 교육기관의 대표자들이다.

학생들은 노래, 댄스음악, 미술, 공예, 악기 연주, 마임(몸동작), 문학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했다. 경연의 결과는 10월 26일(토)에 발표되며, 10월 29일에 체호브센터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우수한 재능을 발표하는 갈라 공연이 펼쳐진다.

### 유즈노사할린스크, 10월 31일 <러시아 창조적 주간> 사업 프로그램 시작

10월 31일(목) 제2회 <러시아 창조적 주간> 축제-포럼 사업 프로그램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시작되는 가운데 사회단체의 전문가들을 비롯해 정부, 대기업의 대표들이 모여 11월 3일(일)까지 창조 부문의 발전을 논의한다고 전해졌다.

극동의 <러시아 창조적 주간>은 극동지역에서 두 번째로 열린다. 2023년에 창조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연방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개최지는 블라디보스토크였고, 올해 개최지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이다.

이에 창조산업의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정부 대표 150명 이상이 유즈노사할린스크로 모인다. 사업 프로그램은 자신을 위한 포사이스(forsyth:전략적 전문가의 평가 시스템) 부문, 전체토론, 원탁회의, 강연 등으로 이뤄진다.

이번 포럼은 영화, 애니메이션, 뉴미디어, 관광, 건축, 도시계획, 연극, IT, 동영상 게임, 요리, 패션, 의류, 예술산업 등 극동지역에서 창조경제개발의 원동력에 들어가는 10개 산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새고려신문

##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92,94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사할린한인문제로 재외동포청,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찾아

이번 주초에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에게서 새고려신문사로 연락이 왔다. 이번 한국 방문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했다.

## - 이번 한국 방문 목적은 무엇인지요?

-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한국 적십자가 진행하는 모국방문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에 사할린에서 1세 어르신 24명, 그리고 이들을 인솔하는 사할린한인 2세 동포(주로 지방 한인회장)가 5명이었어. 저도 인솔자로 갔었는데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으로서 사할린한인문제로 여러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과 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주요 일정에 KIN(지구촌동포연대) 최상구 대표가 많이 도우셨고, 사할린주이산가족협회 명예 회장인 이수진 남양주 사할린한인회장이 많은 일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 - 방문차 누구와 만났습니까?

10월 9일에는 KBS방송국 이승철 기자와 만났습니다. 그는 사할린동포 취재로 곧 사할린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사할린한인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할린한인들에게 대해 더 많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한국에서 사할린한인들의 비극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편, 우리 '토르나도' 스포츠클럽이 오래 전부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스포츠팀과 회장과 만나서 상호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태권도 장비를 구하는 데 도움을 받

았습니다.

중요한 일정 중 하나는 재외동포청 방문이었습니다. 재외동포청에는 박창순 코르사코브한인회장, 이수진 남양주 사할린동포영주귀국회 회장이 함께 갔었고 변철환 차장과 이정주 주무관과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사할린동포 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 법에는 "사할린 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이라고 적혀있는데 우리는 "사할린 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 그리고 이들의 직계비속"이라고 변경해야 한다고 재외동포청 측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에 변차장은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으며, 이 측면에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거주국가의 시민권 상실 없이 한국 국적을 회복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할린동포들에게 복수국적 말고 이중국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했죠. 이를 위해 양 국가 간 협정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사망한 2세들이 영주귀국 권리가 있다고 보고 이들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재외동포청에 우리는 선물로 그동안 사할린주한인협회가 한 사업을 소개하는 자료(광복절 행사, 김치 축제, 한민족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 한국어경시대회, 한민족 공예활동교실 등)를 전했고 이 행사들에서 주



지사를 비롯해 지방자치체 시장 등이 참석하고 협력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외동포청에서 한민족 문화, 전통 및 언어의 보존과 관련 사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국 이민사박물관을 찾아 김상열 관장과 만났습니다. 거기에는 사할린 한인 코너가 있었는데 반가운 것은 사할린한인이산가족사업이 잘 반영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10년 전에 전시를 위해 제가 가져다 둔 가정용 옛날 국수 기계도 전시되어있더군요.

## - 사할린동포 특별법 관련해 누구와 또 만나셨습니까?

- 우리는 이용선 국회의원의 백종운 보좌관과 만났습니다. 그분이 사할린동포 특별법안 작성에 참가한 분입니다. 얘기는 재외동포청에서 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외 영주귀국자들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제공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 -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에 방문하셨나요?

- 네, 글로벌협력사업본부 김나영 차장과 한민족·인도협력팀 김연남 팀장과 만났는데 사할린 현지에서 '사할린 잔류 1세대 의료지원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향후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할린동포 의료지원 대상은 올해는 1945년 12월생까지, 앞으로는 1946년부터-1948년생까지(재정 상황 검토 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할린에 1945년 이후에 온 고려인 출신 어르신도 이번에 의료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 적십자사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 네,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 박은영 본부장과 만났는데 모국방문, 영주귀국 등 문제를 논의했죠. 현재 사할린에는 1세 동포 312명이 계시는데 그중 약 80명은 운신

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해마다 1주일 임시모국방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에는 2년에 한 번 할 수 있었거든요. 이들을 사할린주한인협회와 주이산가족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인 2세들이 인솔할 예정입니다.

영주귀국자들이 사할린으로 역방문하실 때 적십자사에서 인솔했었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때는 인솔자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사할린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도 한적 직원들이 인솔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2 영주귀국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전에 영주귀국하고도 자녀없이 못살겠다는 판단으로 사할린으로 돌아오신 1세 동포가 가족과 함께 재영주귀국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익한 방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재외동포청,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할 때 사할린주한인협회와 관련된 중재, 파기, 항소 재판들의 판결문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사를 통해 이번 주요 만남 일정을 섭외한 사할린주이산가족협회 명예회장인 이수진 남양주 사할린동포영주귀국자회장, KIN(지구촌동포연대) 최상구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배순신 기자) (사진: 박순옥 회장 제공)

## 이모저모

### 사할린에서 타타르인의 결혼식 시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맛과 전통의 가정 축제의 일환으로 타타르인의 서민적 결혼식 시연 연회가 열렸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가 전했다.

행사가 유즈노사할린스크 민속창작센터에서 진행된 가운데 타타르 민족의 전통을 보여주며, 국민요리를 방문객들에게 대접하고, 민족요리 만들기에 대한 활동교실도 진행됐다.

주제에 따른 포토존이 민속창작센터 현관에 장식되고, 행사를 찾아온 방문객들은 타타르 민족의 전통요리인 '차크차크(튀긴 꿀과자)'를 맛볼 수 있었다.

11월 5일에는 아르메니아 결혼식이 열려 방문하여 볼 수 있다.

### На Сахалине показали обряды татарской свадьб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рамках Семейного фестиваля вкуса и традиций прошло национальное гуляние: гостям показали обряды татарской свадьбы.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Там гостям показали традиции татарского народа, угостили их национальными угощениями, а также провели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этнических блюд.

Тематическая фотозона украсила фойе центра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а всех пришедших на праздник встречали традиционным татарским блюдом - чак-чаком. Далее, 5 ноября, можно будет посетить армянскую свадьбу.

### 사할린의 군장병들, 아버지의 날을 맞아 요리 대결 벌여

10월 17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둔 군부대에서 요리 대결이 벌어졌다.

이 행사는 '아버지의 날'과 '요리사의 날', 통신병의 날' 등 3개의 기념일을 맞아 진행되었으며, 국민전선, 조국군인가족위원회가 주최했다.

요리경연에 13개 특수부대와 장병들의 친지들이 참가했다. '국민전선'은 텔레그램을 통해 "우즈베크 필라프(볶음밥)와 아르메니아의 돌마(포도잎 찜)도 있었다. 진짜 베슈바르마크와 사할린의 우하(생선 수프), 끝내주는 맛의 사과파이를 맛볼 수 있었다. 준비된 요리들이 다양해 디저트에서 손을 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요리경연의 우승자들에게는 상장과 상품권으로 시상했다. 영예의 1위는 전자중대와 대공미사일사단이 차지했다. 행사 주최 측은 사할린한인협회의 협력과 활동교실 진행 및 '하늘' 앙상블의 공연에 감사를 표했다.

### Военные на Сахалине организовали кулинарный баттл в честь Дня отца

В воскресенье, 17 октября, в военной ча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шел кулинарный баттл. Мероприятие приурочили сразу к трем праздникам: Дню отца, Дню повара и Дню связиста.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и Народный фронт и Комитет семей воинов Отечества.

Участие в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м сражении приняли 13 подразделений части, а также родные и близкие солдат. «Был и узбекский плов, и армянская долма. Попробовали настоящий бешбармак, сахалинскую уху и невероятный яблочный пирог. Всего приготовленного не перечесть, а от десертов невозможно было оторваться», — сообщили в Telegram-канале «Народный фронт».

Победители получили дипломы и подарочные сертификаты. Почетное первое место разделили танковая рота и зенитно-ракетный дивизион.

Организаторы выразили благодарность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за содействие и проведение мастер-класса, а также за выступление ансамбля «Ханьль».

### 제드 모로즈, 사할린에 마법의 열차를 타고 온다

(제드 모로즈(추위 할아버지)의 열차)가 11월 19일 이르

쿠츠크주의 타이셰트에서 출발해 러시아 전역을 따라 새로운 새해여행을 떠난다. 60개 이상의 도시를 방문하고, 약 3만km 이상을 지나 12월 2일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기차역에 도달한다. 자세한 내용은 러시아 연방 '아비스나옴(홍보)'사이트에서 전하고 있다.

2024년에는 처음으로 <추위 할아버지의 열차>가 유즈노사할린스크를 여행한다. 축제 분위기를 연출한 차량은 몇 가지 흥미로운 객차들을 갖추고 있다.

<환영 객차>에서는 추위 할아버지가 손님을 맞이한다.

<동화 마을>객차에서는 흥미진진한 게임과 도전게임이 진행되며, <인형극 객차>가 있는 <무대의 객차>에서는 새해 공연이 진행된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념품을 실은 <매점 객차>, 기분전환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뷔페 객차>와 <레스토랑 객차>, 마법사의 도우미 팀을 위한 <침대 객차>가 있다.

'러시아 철도' 부회장이 이완 콜레스니코브는 "처음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아이들은 가까이서 마법의 열차에 추위 할아버지와 많은 그의 동료들을 볼 수 있고, 추위 할아버지의 도우미들과 준비한 행사들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추위 할아버지 열차>기획은 2021년 월로그다 주정부와 '러시아 철도'공사가 공동으로 시작했다. 190일 동안 이 열차는 새해 축제프로그램을 가지고 7만8천km에 달리며 러시아 내 170개 이상의 도시들을 방문했다.

### Дед Мороз придет на Сахалин на волшебном поезде

«Поезд Деда Мороза» отправится в новое новогоднее путешествие по России 19 ноября из Тайшета Иркут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етив свыше 60 городов и проехав больше 30 тысяч километров, поезд останови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2 декабря.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на сайте Объясняем.РФ.

(8면에 계속)

## 사할린한인연합회 대표단, 재외동포청 방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많은 사할린 한인들이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있다. 우선, 특별법에 적혀있는 '동반가족'이라는 뜻이 부모가 사망한 2세들에게는 영주귀국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비롯해 사할린동포 특별법을 포함해 여러 사할린한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10월에 러시아 및 연합독립국가에 있는 사할린한인 단체들을 통합하려는 목적으로 사할린한인연합회를 창설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중요하여 사할린한인연합회에서 이번에 재외동포청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하고 면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알게 된 많은 사할린동포들이 대표단의 필요한 방안을 위해 기부를 하였다.

이번 사할린 대표단은 사할린연합회의 김 라이사 사무국장, 고영순 마카로브 한인회장,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사할린한인회 대표로 한 최영구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김 라이사 사무국장 대신 연합회의 유명희 부회장이 한국으로 가게 되었다.

10월 17일 우리는 재외동포청을 찾아 변철환 차장과 아주러시아동포과 정선호 과장과 만났다. 간담회에서 사할린한인연합회에서 준비한 호소문(본지 3면에 게재)을 전달하고 부모 생사관계 없이 사할린동포 2세들이 영주귀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 사항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제안들을 고려해 재외동포청이 사할린동포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국회에서 심의하도록 요청했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들은 우리가 하는 얘기를 주의깊게 듣고 특별법에 관한 제안, 사할린 2세 상황 등에 대해 잘 이해한다고 했지만 이 문제와 관련 정부 여러 부서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간담회에서 사할린한인디아스포라에서 생긴 상황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할린한인연합회의 대표단이 재외동포청을 방문한 것은 앞으로 사할린한인문제 해결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 본다. 이번 방문은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사할린한인연합회 대표단 최영구  
(사진: 사할린한인연합회 대표단 제공)

## 사할린 주지사, 러시아 문화부 장관과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개발 분야 논의

모스크바에서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러시아 연방 문화부 올가 류비모와 장관이 만남을 가진 가운데 사할린 지역의 문화 분야 개발 문제를 논의했다. 문화 분야 개발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사할린에서 제 6회 극동 극장들의 축제 개최이다.

2025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는 극동지역 우수 극장들이 각기 공연작들을 가지고 모여드는 새로운 연극의 수도가 되어 러시아의 우수 극장들이 비경쟁 부문에서 그들의 연극들을 상연한다. 이에 국립극장과 나간 및 모스크바 청소년 극장과 사전 합의가 이뤄졌다. 특히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보리스 슈킨 연극대학 분교 개교에 관심을 기울였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지난 5년간 사할린주 문화 분야에서 실질적인 돌파구를 찾아내 보다 향상되고 질적인 수준으로 문화사업을 이끄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강조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창작과 예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제반시설을 개발하고, 재능인들을 발굴해 기회를 제공하며, 지원하는 등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뮤지컬 극장 설립과 팝오케스트라 창설, 체호브 센터에서는 새로운 연극을 선보이며, 화가들을 위해 새로운 작업 및 전시실을 건설했다. 올해는 유



즈노사할린스크에서 서커스가 열리고, 교향악 음악을 위한 음향장비를 갖춘 강당이 문을 열었으며, '소브레멘니크(현대인)' 전시장 건설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문화는 이제 사할린 주민들에게 있어 떨 수 없는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

다."고 말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관객 1000명 수용의 클래식 뮤지컬코미디극장을 건립하는 것도 질적인 예능 문화 제공에 기여할 것이다. 이 무대는 최대 200명까지 수용하는 대규모 음악 및 댄스뮤직 예술단의 공연을 고려해 설계할 예정이다. 공사 완료는 2027년으로 보고 있으며, 새로운 문화공간의 개관으로 최신 음악과 극장 기술을 활용하는 세계적 수준의 행사와 대규모 축제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 민속박물관 사할린 분관 개관에 관심이 집중됐다. 만남에서 참석자들은 이 기획이 기존 문화 제반구축에 걸맞아 적합하며, 극동 원주민들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에 대한 지식의 귀중한 원천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또한 사할린에 오페레타 뮤지컬극장 건립과 숲수심에 야외 박물관 건립에 따른 계획을 논의했다.

기획들에 대한 사업 진행은 러시아 연방 문화부의 직접적인 참여 속에 진행된다.

## 러시아인들 식비 월 4만루블리, 월급의 절반 지출

경제학자들이 러시아인들은 월급의 절반 정도인 월 4만 루블리를 식비로 지출한다고 총계를 내렸다. 동시에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지위'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월평균 근로임금은 8만5천 루블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이 살기에 편안한 유럽에 따르면 식비 지출율의 표준수치는 월급의 약 15%이다.

'시네르기야(시너지:상승효과)' 대학 행동경제학

및 경제이론 학부의 부교수이자 경제과학 준박사, 부교수인 올리아 소블레와는 신문사와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에서는 식비 지출이 50%에 가깝다고 밝혔다.

러시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의료 및 교육 서비스에는 국민소득의 평균 7.6%를 지출, 주택 유지로 10.4%, 통신서비스에 2.7%, 교통비 2.2%, 기타 가사서비스에 4.9%, 의약품 포함 비식품류에 대한 지출 비율은 34.1%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 대한민국 재외동포청에 보내는 호소문

이 호소문은 대한민국 정부와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역사적 고국으로의 귀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회를 통해 관련 입법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며 '동반가족'의 범위가 확대된 후 우리 동포들의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점은 대한민국 정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현행법은 다음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많은 다른 사할린 동포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 부모인 '사할린 동포'가 사망한 경우.
2. 부모가 사망하면 향후 언제라도 '동반 가족' 자격을 상실할 위험에 처한 경우

2023년 6월 5일,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한인사회의 열망을 실현하고 재외동포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사할린 동포들은 동포청 설립에 큰 기대를 걸었고, 2023년 10월 비영리 단체인 '사할린한인연합회'를 설립했습니다.

사할린 한인의 대다수(80%)가 우리의 목표와 과제, 견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단체 정관에 대한민국 특별법에 따라 영주귀국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사할린 한인인을 포함한 특정 그룹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들의 직계 조상은 우리의 길고도 아픈 역사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부는 광복을 맞기도 전, △일부는 소련이 해체 되기도 전, △다른 일부는 사할린 특별법이 시행되기 직전, △그리고 일부는 자녀가 '동반 가족'으로 인정되어 한국으로 영주귀국 하는 것을 기다리던 중에 사망했습니다.

죽음이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래서 그들이 원할 때 찾아오는 것이었다면, 그들의 자녀들은 이토록 강한 억울함과 분노, 실망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조상들의 산산이 부서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할린 동포들은 다시 이산가족의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으며, 이미 사망한 '사할린 동포'의 직계 후손(자녀)에 대한 이 법 조항의 깊은 부당함을 깨닫고 부정적인 정서가 강해졌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출생한 사할린 한인들의 역사적 고국으로의 귀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서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을 특정일(1945년 8월 15일)로 형식적으로 정함에 따라, 같은 부모의 자녀라도 세대와 법적 지위(특별법 적용 대상 여부)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역사학에서는 세대를 부모를 공통으로 둔 형제자매 전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3년, 카자흐스탄, 모스크바 시, 모스크바 주, 트베리 주, 벨고로드 주, 쿠르스크 주, 블라디미르 주, 상트페테르부르크 시, 레닌그라드 주, 사할린 주, 하바롭스크 시, 이르쿠츠크 및 트랜스바이칼 지역, 블라디보스토크 시, 연해주, 로스토프나도누 및 북카프카스 지역의 사할린 한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년월일이 1945년 8월 16일부터 60년대 중반까지만 약 3,500명의 사할린 한인들은 이미 사망한 조상의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강한 열망과 특별법 적용 대상자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옹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사할린 한인 연합회가 2023년부터 이 문제를 다루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할린 동포들이 꾸준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전 세계 어느 한인 디아스포라도 사할린 한인만큼 일제 지배의 부정적 영향을 강하게 경험하지 않았고, 한인 디아스포라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할린 한인의 역사는 일제 식민지배와 소련의 차별 및 분리 정책 아래서 대량 학살과 동화의 세월을 견뎌낸 이들이 바로 사할린 한인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의 많은 부분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할린 한인 연합회 대표단이 재외동포청(인천) 본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단체 대표단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및 제2조의 차별적 성격이 1950년 11월 4일 로마에서 서명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간접적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재외동포청에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설득할 것입니다.

이 목표는 재외동포청의 주관 하에 관련 부처의 협업과 협의 과정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추가 개정안 마련과 적용 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한 제안서를 대한민국 입법 주체들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할린 한인 연합회는 이러한 개정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하나. 제1조(목적)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가족,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둘. 제2조(정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셋. 제2조 제2항을 삭제한다.

사할린 한인 연합회장 김홍지  
2024년 10월 5일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Издана книга о преступлениях японцев против корейцев на Сахалине в августе 1945 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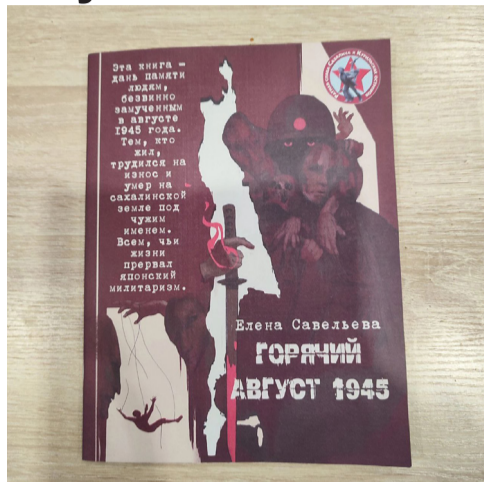
Минуло почти 80 лет со времени событий, описанных в новой книге сахалинского историка Елены Савельевой. Для обложки брошюры «Горячий август 1945» автор выбрала мрачную красно-коричневую гамму. И у нее были на то основания.

Отправной точкой стал факт: в прошлом году управление ФСБ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ередало в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обеда» рассекреченные материалы, касающиеся заключительного этапа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 Елене Ивановне Савельевой, ученому секретарю ММК «Победа», пришлось изменить первоначальные планы – писать, как было задумано, о сахалинской культуре, истории музея. Потому что есть темы, которые нельзя сложить в долгий ящик, они будут беспокоить, искать выхода к людям. Потому что «пепел Клааса стучит в сердце».

Пять переданных томов содержат документы о преступлениях японцев против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Хронология происшедшего – межвременье, с 15 по 25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когда рухнула старая власть и уклад жизни и еще не пришла Советская армия. Хаос, анархия, паралич экономики в городах и селах Карафутто, страх неизвестности, истерия в ожидании победителей, попытка сохранить верность микадо по своему разумению – все эт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стали историческим фоном, на котором развернулись страшные события горячего августа 1945-го на Сахалине. Думаю, они стоят в одном ряду с Нанкинской или Вольнской резней, потому что не бывает маленькой истории и жизни.

Еще в 1990-х годах сахалинский учитель истории, писатель Константин Гапоненко создал книгу-расследование «Трагедия деревни Мидзухо» – об убийстве японцами (не военными – гражданами) корейских жителей деревни (ныне это Пожарское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Об убийстве 18 корейцев в Камисисука (Леонидово Поронайского района) экс-сотрудник ФСБ Владимир Гринь рассказал в книге «Разлука длиной в жизнь». Но, имея под собой реальную архивную базу, эти книги все же был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ми. Тогда как для историка недопустимы «ни домыслы, ни вымыслы», только сухие факты.

А документальных свидетельств хватало. Следствие НКВД, проходившее в 1946 году, зафиксировало также убийства в Орлово, Нерпичьем, Тихменеве (и этот печальный перечень, ясное дело, много больше). Были они немислимо жестокими и до жути будничными, между завтраком и обедом соседи-японцы убивали и сжигали соседей-корейцев, не щадя ни женщин, ни младенцев. Градус насилия зашкаливал: лишали жизни за одно подозрение – просто «показалось», что разводил сигнальный ко-



стер советским самолетом, за просьбу выдать винтовку для самообороны или за разговор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алачи не чурались прихватить вещи бедняков, с которыми жили лет до августа 1945-го, и шли после кровавой «жатвы» пить-есть – как после тяжелой крестьянской работы...

Книга обращена и в прошлое, и в будущее. По мысли Елены Савельевой, это не только дань безвинным жертвам японского милитаризма, но и «пилюля от беспамьятства». Ее невозможно читать спокойно. Принять разумом историю, да и перечитывать – заставить себя чрезвычайно трудно. Книгу писал научный работник, привыкший строго следовать документу –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строкам протоколов допросов. Но отнюдь не рационально-отстраненно, а взволнованно, пытаюсь докопаться до корней в поисках ответа на вопрос: как такое стало возможно? Ведь злодеяниями занимались члены вооруженных оборо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Бозэйтэй», «Кукумин гиутэй», «Сейненбан», куда входила молодежь от 17 лет. По авторской версии, эти события произошли из «зоны пустоты, где нет места ни дружбе, ни жалости, ни добрым человеческим чувствам», – системы японской императорской армии, которая стремилась вытравить человеческое и привить с юных лет людоедскую психологию. И судя по сегодняшним событиям у наших западных границ, стратегия продолжает работать. «Зона пустоты» – так называется антивоенный роман японского писателя Хироси Номы, подсказанный автору профессором СахГУ Еленой Иконниковой.

Книга «Горячий август 1945» издана в рамках долговременного музейного проекта «Без срока давности». А 8 ноября в ММК «Победа»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откроется одноименная выставка. Она основана на вышедшем в открытый доступ материалах о пособниках немецких фашистов на Украине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Выставка готовится совместно с Донецким краеведческим музеем.

Ирина Цой

## Художники смыслов в азбуках города

4 октября 2024 г. Институт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овместно с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ООСК) на площадке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провели два мероприятия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гранта в области искусства «Художники смыслов в азбуках города»: конкурс творческих работ на тему «Городская азбука» и конкурс каллиграфии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сообщили в СахГУ.

Участниками конкурсов стали более 100 школьнико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 также гости из школ г. Корсаков и г. Долинск,

воспитанники спортивных клубов СК «Торнадо»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К «Единство» г. Корсаков, участники ансамбля «Ханьль» при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Как сообщ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17 октября жюри собралось на подведение итогов и определило победителей и призеров. Членами жюри стали руководитель департамента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и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Роман Хлудин, член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Дё Сон Ен,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председа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педагого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 РООСК Инна Корнеева.

## ОБРАЩЕНИЕ в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Данное обращение имеет своей целью обеспечение прямой и обратной связи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ой для решения вопроса возвращения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Мы стремимся побудить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реи нач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законодотворческий процесс через Национальный Парлам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сновной 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утвердил статус «сопровождающего члена семьи», это значительно улучшило положение наших земляков, особенно после вступления в силу поправок в данный закон, за что выражаем огромную признательность Правительств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месте с тем, действующий закон ограничивает в правах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други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ледующих категорий:

- 1) у которых родители –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 умерли.
- 2) которые рискуют в любой момент времени утратить статус «сопровождающего члена семьи» после смерти своих родителей в будущем.

5 июня 2023 г. в Корею был образован Департамент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званный оказывать помощь в реализации стремлений корейских сообществ по всему миру и удовлетворении потребностей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осприняли это событие с большим воодушевлением, поэтому в октябре 2023 г. создали некоммерческую организацию «Ассоц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Большин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80%) разделяют наши цели, задачи и взгляды, а также возлагают на нас большие надежды, т.к. в нашем Уставе закреплена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 защите прав отдельных групп населения, в том числе таки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м не удалось стать участниками программы переселения в рамках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Кореи. Их прямые предки ушли из жизни в разное время нашей истории: у кого-то – очень давно, у других – давно или недавно, а у некоторых, уже включенных, в списки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членов семьи» – на этапе подготовки и сбора пакета документов для выезда к месту проживания в Корею своих родителей(!). Ведь смерть не выбирает время и место, она приходит, когда ей хочется. Дети умерших родителей испытывают сильнейшее чувство не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обиды и разочарования. И мы не теряем уверенности в возможности помочь им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и возродить разрушенные надежды предков.

По мере реализации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у многи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азбросанных по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и бывших республик СССР, усилились страхи повторения синдрома разрозненных семей, укрепилась негативные настроения и осознание глубокой не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положений данного закон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прямым потомкам (детям) уже умерших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До сих пор не утихают споры по вопросу возвращения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одившихся после 15.08.1945 г., разлучённых от своих родных старших братьев и сестёр в результате формального подхода в специальном законе к выбору пограничной даты – 15.08.1945 г. В исторической науке существует определение поколения как всей совокупности родных братьев и сестер, имеющих общего родителя.

В 2023 году проведен опрос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Москвы,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Тверской области, Белгородской области,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ской област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Лен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Хабаровска, Иркутска и Забайкалья, Владивостока,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Ростова-на-Дону и Северо-Кавказского округа.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данного анкетирования примерно 3,5 тысяч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дата рождения которых от 16.08.1945 до середины 60-х годов XX века, выразили непрекращающееся сильное желание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своих уже умерших предков и решимость продолжать отстаивать вопрос включения их в категорию лиц, подпадающих под действие данного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Им известно, что продвижением этого вопроса с 2023 г. занимается Ассоц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чему мы,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настаиваем на пристальном внимании к данному вопросу 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ступате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в его решении? Потому что ни одна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в мире не испытала столь мощно выраженных негативных последствий японского господства, как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ни – самые пострадавшие из всех корейских диаспор.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доказывает, что именно они пережили многолетний геноцид и ассимиляцию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зации, советскую дискриминацию и сегрегацию.

Выражая интересы большого сегмента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Ассоц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нонсировала поездку делегации в главный офис Департамента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г.Инчхон). В рамках данного визит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шей организации попытаются убедить дружественную в наличии дискриминационного характера положений статей 1 и 2 основног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что является косвенным нарушением Конвенции от 04.11.1950 г. «О защите прав человека и основных свобод». Необходимо это устранить через поправки в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Поставленная цель может быть достигнута только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и при участии Департамента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и через переговорный процесс по данной теме.

На основании вышеизложенного наша организация просит направи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предложение субъектам внесения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инициатив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 разработке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поправок в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расширить круг лиц, подпадающих под его действие. Ассоц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едлагает примерную основу этих поправок:

1. Статью 1 изложить в следующей редакции:

«Целью настоящего закона является компенсация ущерба, понесенного сахалински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принудительно завезенными на Сахалин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зации и пр., ставшая возможной благодар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усилиям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а также оказание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членов их семей, прямых потомков умерших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2. Статью 2 изложить в следующей редак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 лица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которые родились на Сахалине либо переселились на Сахалин до 15.08.1945 г., и их прямые потомки с супругом.»

3. Пункт 2 статьи 2 исключить.

Президент Ким Хон Ди  
5 октября 2024 г.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Путин - Си Цзиньпин: Россия и Китай привержены духу дружбы

Россия и Китай «привержены духу вечного добрососедства и дружбы, всестороннег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и взаимовыг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 заяв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КНР Си Цзиньпин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состоявшейся 22 октября в Казани. «За минувшее десятилетие китайско-росси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ыдержав испытания переменчив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ситуацией, прошли огромный путь и приобрели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й характер», - добавил он. Как отметил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двух стран помогает стабилизировать ситуацию во всём мире». Более того, «отношения России и Китая - образец того, как должно выгляде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тран», - отметил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Лидеры России и Китая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в саммите БРИКС, проходящем с 22 по 24 октября в Казани.

## Лидер КНДР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ракетные базы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ракетные силы являются ключевым элементом сдерживания, а модернизация воен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остаётся важным принципом оборонной стратегии. Как сообщило 23 октября агентство ЦТА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он Ын заявил об этом в ходе посещения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баз, на которых размещены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е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Он проверил боеготовность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ракетных сил, функциональность объектов, связанных с запуском ракет, а также состояние боевого дежурства. Ким Чон Ын напомнил о нарастающих угрозах со стороны США, заявив, что усиление сил сдерживания, включая ядерный арсенал, является насущной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Он распорядился укрепить боеготовность ракетных баз,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оперативно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любую угрозу,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Когда и какие именно базы посетил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не сообщается.

##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настаивает на назнач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го прокурора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Сила народа продолжит настаивать на назнач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го прокурора для расследования обвинений в отношении первой леди Ким Гон Хи. Она подозревается в причастности к махинациям с акциями, получении дорогостоящей сумки и вмешательстве в парламентские выборы. Об этом заявил лидер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Хан Дон Хун, выступая 23 октября на расширенном заседании парламентской фракции. Специальный прокурор должен расследовать также незаконные действия сотруднико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связанных с первой леди. Данная работа должна быть завершена до вынесения первого судебного решения по обвинениям против лидера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Ли Чжэ Мёна в лжесвидетельстве и нарушениях избиратель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 добавил Хан Дон Хун. Он особо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ообщил президенту страны Юн Сок Ёлю о своём намерении настаивать на назнач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го прокурора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 ним 21 октября.

## Рождаемость в РК растёт два месяца подряд

По данным,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23 октября национальным статистическим управлением, в августе этого года в РК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20.098 новорождённых, что на 5,9% бол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Рождаемость растёт второй месяц подряд. В июле она увеличилась на 7,9%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Количество пар, вступивших в брак, увеличилось в августе на 20%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составив 17.527. Число разводов сократилось на 5,5%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составив 7.616 случаев. В августе умерли 32.244 жителя страны, что на 5,6% больше, чем в том же меся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мертность превышает рождаемость с четвёртого квартала 2019 года.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населения составила 12.146 человек.

## В Сеуле обеспечат безопасность во время празднования Хэллоуина

В период с 25 октября по 3 ноября в 15 районах Сеула с высокой вероятностью скопления людей в преддверии празднования Хэллоуина будут усилены меры безопасности. Совместные патрули полиции, службы спасения и мест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будут дежурить на территории туристических зон в районах Итхэвон, Хондэ, Каннам, Мёндон, Синчхон и других местах, где традиционно собираются большие группы людей.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возникновения давки, будут оперативно у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временные заграждения, а потоки людей будут перенаправляться по безопасным маршрутам. Для районов, где ожидается максима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разработаны планы на случай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и схемы эвакуации граждан. Власти заверяют, что будут поддерживать тес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о всеми ведомствами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максим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х праздн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RKI**

## КНДР в конституции назвала Южную Корею "враждебн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В четверг 17 октября СМИ КНДР официально уведомили граждан о том, что ранее были подорваны дороги, ведущие в Южную Корею. Из публикаций также стало понятно,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 своей конституции назвала Юг "враждебн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что вызвало протесты в Сеуле.

Хотя подрыв двух дорог, ведущих из КНДР в Южную Корею произошел 15 октября, но СМ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фициально сообщили об этом своим гражданам в четверг - 17 октября. В новости Центрального телеграфного агентства Кореи (ЦТАК), говорится, что Генеральный штаб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КНДР "принял меры по полному физическому разрушению дорог, проходящих на западном и восточном участке границы в сторону Южной Кореи".

Это сообщение было продублировано на первых полосах всех печатных изданий КНДР. На первой полосе газеты "Нодон синмун" также размещены три фотографии, на которых запечатлены моменты подрыва.

Однако внимание зарубежных экспертов привлек иной пассаж этого же сообщения. В заявлении ЦТАК также сказано, что меры по ликвидации дорог были осуществлены "согласно требованию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онституции, в которой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определена как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е враждеб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отныне в новой версии Конституции КНДР Южная Корея официально и на юридическом уровне определена в качестве "враждебной" страны.

Таким образом, стало понятно, какие поправки были внесены в Основной закон страны в ходе очередной сессии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КНДР,

которая прошла в Пхеньяне 7-8 октября.

Иностранные эксперты также ожидали, что в новой версии конституции КНДР будет на доктринальном уровне подтвержден отказ от намерения объединиться с Южной Кореей, а территория КНДР будет определена в ее фактических границах - то есть к северу от 38-й параллели. До сих пор конституция гласила, что КНДР занимает весь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подразумевая, что южная часть "временно" находится под контролем мятежников. Впрочем, такой же пассаж до сих пор содержится и в Конституц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весь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Однако из появившихся в четверг публикаций в СМИ КНДР нельзя установить, были ли в Основном законе КНДР определены новые границы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или не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крайне негативно отреагировало на определение ее в Конституции Севера как "враждеб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ъединения РК немедленно распространило заявление, в котором "решительно осуждаются" действия Пхеньяна, а поправки названы "направленными против объединения и нации", "разжигающими ненависть между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удет решительно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любые провокации Севера. Мы также без колебаний продолжим наши усилия, которые будут продолжены озвученной 15 августа "Доктрины объединения" и которые направлены на достижение мир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во главе чего будет лежать свободная 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основа, как это определяет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ведомств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 Путь к признанию подвига Хон Бом До

22 октября в Парламенте Кореи состоялась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передачи таблички с надгробной плиты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которую вручил наш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Ким Лев Николаевич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делегации, возглавляемой спикеро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У Вон Сиком, в Казахстан.

Это событие имеет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корё-сарам, так как связано не только с увековечиванием памяти героя, но и с признанием роли корё-сарам в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м движении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После перезахоронения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в Кызылорде местонахождение первой таблички, установленной в 1951 году на надгробной плите, было долгое время неизвестно, но спустя 40 лет она была найдена и теперь торжественно возвращена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Генерал Хон Бом До является важной фигурой, символизирующей вклад корё-сарам в историю борьбы за свободу Кореи. После церемонии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редакционной коллегии Мемориального общества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где было решено предоставить несколько страниц в вестнике общества для публика-

ций от АКРК. Это даст возможность нас делиться своими проектами, инициативами и решать проблемы, с которыми сталкиваются корё-сарам в Корею.



Публикации могут привлечь внимание к важным вопросам интеграции, адаптации детей и сохранению культур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Это шанс наладить диалог с корейским обществом и властями, укрепив позиции корё-сарам в стране.

Участие в так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как сегодняшняя церемония, — это не просто акт памяти, но и возможность стать видимыми и услышанными, продвигать интересы нашего сообщества и защищать наши права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АКРК, 22 октября 2024 г. <https://t.me/akrk2018>

## В Чонджу прошел 22-ой Всемирный форум корейских бизнесменов

С 22 по 24 октября в городе Чонджу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букто прошёл 22-ой Всемирный форум корейских бизнесменов.

Данный форум оказался самым масштабным, он собрал 3000 бизнесменов из 60 стран мира.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создало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й совет бизнесменов, который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ять интересы более 7 миллионов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в течение двух лет. Из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бизнеса разных стран были избраны 179 человек.

В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й совет вошли 4 представителя русскоязычной диаспоры корейцев. Евгения Цхай,

Сергей Ин, Вячеслав Ким и Надежда Ни удостоились чести стать членами совета бизнесменов при Агентстве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Глава Ли Сан Док вручил именные верительные грамоты о назначении.



[https://t.me/koryoin\\_globalnet](https://t.me/koryoin_globalnet)

## Отзыв на Медицинскую программу для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 приглашению РООСК с 2020 года я посещаю мероприятия, организованные в рамках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граммы для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программу входят различные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 консультации узкопрофиль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которые дают нам ценные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е рекомендации и разъяснения по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и проблемным вопросам, касающихся нашего здоровья;

- ежемесячное бесплат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лекарственными препаратами по предписаниям врачей. Лично меня обеспечили медикаментами для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ого лечения с тремя циклами приема;

- занятия по укреплению здоровья, игры, развивающие память, мелкую моторику.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организаторов программы за заботу о нас, пожилых людях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Дю Гиль Дя (주길자) 08.10.2024г.

##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едставил план по развитию креативных индустрий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22 октября ТАСС провел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ю, посвященную окружному форуму «Российская креативная неделя –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анонсирующем предстоящую деловую программу фестиваля, и рассказал о формировании креативного кластер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 поддержке творческой и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в регионе и создании необходим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ля развития талантов и местного бизнеса.

– Россия сегодня идет на Восток. Здесь растущие рынки,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экономика, запускаются крупные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роекты. Все это требует привлечения кадров. Чтобы закрепить и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ы создаем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жизни людей. Это благоприятная и современная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и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ать услуги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и творчества, либо реализовыватьс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в этой сфере. Мы нацелены на то, чтобы сделать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самым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регионом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Местом, где молодежь сможет получить необходимое образование,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и творческие инициативы и выйти с ними не только на российский, но и мировой рынок. Российская креативная неделя нам в этом поможет,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мерена выйти в лидеры ДФО по развитию креативной экономики. Работа по разработк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стратегии ведется совместно с Агентством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Сюда входит создание благоприя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бизнеса, повышение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остров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на российском и мировом рынках, а также экспорт местной продукции – сувениров, картин, различных брендов, размещение на стриминговых платформах музыкаль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сахалинских авторов.

Важным решением для развития и поддержки бизнеса в регионе стал запуск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 – Знак качества». Его реализуют совместно с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ой палато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же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предприятий получили право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Знака качества, что помогает им в продвижении продукции и услуг за пределами области, повышает их узнаваемость.

В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роводится масштабная работа по развитию культурной и творческой жизни, поддержке талантливых островитян. В 2020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ось арт-пространство «Маяк» для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льных молодых художников, мастеров, брендов и дизайнеров. Сегодня «Маяк» объединяет больше 120 резидентов. Для островных художников созданы особые условия – появились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для работы, творческие мастерские и выставочные залы. Сформирован каталог работ «Золотой фонд Сахалина», где собраны порядка 1000 лучших работ сахалинских мастеров.

С 2022 года запущена Академия эстрады Ларисы Долиной. Выпускники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в большой части концертов, которые проходят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в программах, которые транслируются по Первому каналу. Впервые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ел Летний кубок КВН.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чемпионы последних двух сезонов Высшей лиги КВН.

Кроме того, в этом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ся первый в России филиал Щукинского театр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В нем будут преподавать лучшие мастера сцены, и поэтому студентам не нужно уезжать за театральным образованием на материк. Есть планы по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 Союзмультифильмом по обучению и производству анимации. На базе СахГУ планируется создать факультет креативных индустрий.

– Лучшие эксперты по раз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 кино, анимация, гастрономия, индустрия моды и другие уже работают на Сахалине. Рассчитываем, что результатом форума станут конкретные 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буду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развитию креативной экономик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 подытож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прошедшей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такж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заместитель начальника Упра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по общественным проектам Александр Журавский, президент АНО «Креативная экономика», директор форума «Российская креативная неделя» Марина Монгуш-Абрамова,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развития креативной экономики Агентств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по продвижению новых проектов Екатерина Черкес-Заде, сооснователь проекта «Дизайн-выходные» Вячеслав Правдзинский и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геодемографии и пространств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МГУ имени М. В. Ломоносова Александр Панин.

– Агентств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внедряет региональный стандарт по развитию креативных творческих индустрий, 48 регионов внедряют его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в том числе и Сахалин. Но я нигде не видела такой активной вовлеченности, в том числе главы региона, в такое быстрое и интенсивное развитие в этой сфер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роль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вопро-

се креативной экономики сейчас сложно переоценить. Именно эти регионы находятся ближе всего к Азии, понимают азиат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код. И мы видим активную позицию Сахалина с точки зрения того, как использовать весь инструментарий креативных индустрий для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региона. Сахалин, на мой взгляд, безусловно, в этом вопросе составляет конкуренцию не только для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о и всей страны. И я надеюсь, что Сахалин очень быстро станет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местом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разных проектов в области креативной экономики. Там должно сниматься кино, должны развиваться города за счет креативных проектов, а самое главное – это очень талантоцентричный регион. Впервые я вижу, как регион занимается хантингом отдель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и призывает их на территорию острова. Подобную релокацию с точки зрения динамики и скорости я не видела нигде, – поделилась в ходе своего выступления Екатерина Черкес-Заде.

Отметим, основная деловая программа форума «Российская креативная неделя –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пройдет с 31 октября по 3 ноября. Фестиваль объединит на одной площадк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федеральн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институтов развития,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и аналитических центров, креативного бизнеса и медиарынка. Ключевыми темами форума в этом году стали: локальная идентичность и брендинг региона как способ привлечь креативный класс, креативная экономика как индустрия ценностей, архитектура и урбанистика: пространственное развитие Сахалина, туризм: эффект мультипликатора для креативной экономики, федеральные и региональн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социальный импакт и кадры для креативных индустрий, формирование идентичности Сахалина через креативные индустрии.

## Сахалинских волонтеров отметили наградами «Народный фронт. Все для Победы»

Сахалинских волонтеров, которые помогают бойцам СВО и их семьям, отметил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наградами. 18 октября нагрудные знаки «Народный фронт. Все для Победы», а также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от главы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неравнодушным активистам в торжественной обстановке вручили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и специальный гость мероприятия, российская рок-певица и патриот Мара.

– Все вы являетесь участниками важного проекта «Все для Победы!». Это не просто лозунг, это подход, которым руководствовался наш народ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который сегодня объединяет тыловики со всей страны для решения большой задачи – приближения нашей Победы. Миллионы волонтеров поддерживают наших ребят, которые отстаивают интересы России в зоне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помогают семьям бойцов. Я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всех вас за неравнодушие к судьбе Родины. Надеюсь, ваш пример будет вдохновлять и других, и на Сахалине станет еще больше людей, которые будут участвовать в этом благородном деле, – обратился к участникам мероприятия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 руковод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Со словам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к сахалинским волонтерам также обратился сенатор РФ от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Андрей Хапочкин. Памятные знаки 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были вручены общественникам 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бизнеса, которые организуют работу по формированию и доставке гуманитарных грузов в зону СВО, а также помогают семьям воинов в тылу. Так, директор автомастерской «Мегаватт» Роман Макаров помогает проводить осмотр, диагностику и ремонт автомобилей для отправки в зону СВО, а также направляет на фронт стройматериалы для блиндажей и укреплений.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емлячество горного Алтая» Антонина Ирункина совместно с другими волонтерами вяжет для бойцов шерстяные изделия. Участники гуманитарного движения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ая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 ЗА НАШИХ» Мария Пасикунова занимается изготовлением сублимированных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вместе с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ами они уже передали в зону спецоперации 23 тонны супов и консервов. Анестезиолог – реаниматолог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Татьяна Рыкунова осуществляет сбор и отправку медикаментов. Координатор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Оха – фронту» Дмитрий Сагунов сам разработал и отправил бойцам сброс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квадрокоптеров. Замдиректора Комитета семей воинов Отеч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рина Гвон занимается патриотическим воспитанием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 Если не будет надежного тыла, нашим ребятам будет очень тяжело. Они именно об этом и говорят: что всегда чувствуют за своей спиной поддержку общества, им от этого легче. Наше движение поддерживает бойцов по зову души, по-другому мы просто не можем, – отмет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доброволь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Сахалин. Верность Отечеству», награжденная памятным знаком, Наталья Козлова.

С авторскими песнями перед участниками мероприя-

тия выступила певица Мара, которая неоднократно давала концерты для бойцов спецоперации.

– Я считаю, помогать фронту должен каждый из нас. Ребята должны чувствовать огромную поддержку от всей нашей страны! В зоне СВО, в том числе на линии боевого соприкосновения, мы дали более 60 концертов. Мы играли для ребят на Донец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и в Горловке, и в Авдеевке – через неделю после ее освобождения, и на Херсонском, и Запорожском, и Луганском направлениях. Буквально только что мы вернулись из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где дали концерт в пункте временного размещения для наших беженцев. Там более 500 человек, в основном это дети. Мы совместно с «Народным фронтом» привезли партию ноутбуков,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нормально учиться, – рассказала Мара.

Проект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Все для Победы!» – масштабная акция по сбору средств, амуниции и техники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СВО. С начала спецоперации волонтеры со всей России собрали больше 16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которые были направлены на нужды бойцов, а также на поддержку мирных жителей новых регионов.

## Сахалинский лес стал больше на три с половиной тысячи деревьев

18 октября в регионе прошла акция «Сохраним лес». Посадить свое маленькое деревце смог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Всего акцию поддержало около восьмидесяти человек.

Традиционно не остались в стороне и приехали поддержать доброе дело волонтеры, общественники, школьник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трудовых коллективов, власти и другие. Их, как обычно, от трассы до места доставили по грунтовке на вахтовых машинах.

Вот уж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для осенней акции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бирают участк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лесничестве на месте горельника 2002 года. Акцию планировали провести в субботу, но решили довериться синоптикам и успеть до похолодания. Хотя, как говорят специалисты, осенняя влажная прохлада – то, что надо для посадки семян.

– Важно, чтобы, температура воздуха не поднималась надолго выше 20 градусов, и солнце сильно не палило, – поделился главный лесничи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лесничества Владимир Сойкин. – Растение должно не потянуть сок, «заснуть», хорошенько укорениться и пойти в активный рост только весной. Тогда и приживаемость будет отличная.

Но, какой бы ни была погода, лесничие так и так обязательно приедут на место весной, чтобы оценить, хорошо ли на новом месте себя чувствует свежесаживаемый лес.

Сегодня на акции сажали лиственницы, в том числе и с помощью нехитрого, но очень эффективного в этом деле, Меча Колесова.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инвентарем участников акции снабдил Южное лесное хозяйство и Сахалинская авиабаза. Посадочный материал, двух-трехгодовалые сеянцы, привезли из питомника села Троицко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е лесничество заранее подготовило под посадки почву. Здесь бульдозер нарезал четыре полосы по 250 метров каждая. В полосе – по 2,5 тысячи строчек для маленьких деревьев.

Всего на площади в 1,19 гектара было высажено 3 500 сеянцев лиственницы. По традиции перед посадкой лесничие и сотрудники агентства показали, как орудовать Мечом Колесова, как правильно притаптывать деревце.

Ребятам из Центра содействия семейному устройству «Звездный» этот мастер-класс, похоже, был ни к чему. Директор учреждения Надежда Кириллова поделилась, что дети не первый раз участвуют в акции «Сохраним лес». Да и территорию самого Центра они регулярно засаживают новыми деревьями.

– У нас территория – 3,5 гектара. Каждый выпускник обязательно перед уходом сажает деревце. И остальные ребята обязательно участвуют в посадках. Потому что я сама это дело очень люблю. Дети мне помогают. А как не помочь, когда перед ними директор стоит в сапогах и с лопатой. Березы, елки, сирень, каштаны, дубы, клены... Две аллеи большие у нас. Лес – это здорово! Его нужно беречь и приумножать. Хорошо, что агентство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области проводит такие акции и приглашает наших ребят, – поделилась Надежд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Всероссийская акция «Сохраним лес» проводит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Экология»,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страны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 Всего в этом году,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лесным планом региона, лесо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запланировано на площади 3040 гектаров. Из них искусственно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осадка сеянцев) – на 608 гектарах. Восстанавливать лес – обязанность наших лесных хозяйств, часть мероприятий проводят арендаторы лесных участков. Также мы очень ценим помощь в этом деле наших земляков, тех, кто участвует в таких вот экологических акциях и приезжает нам помочь. Спасибо вам большое,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оман Остапенко.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제 9 회 <사할린의 밤> 행사 참석 소감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높은 하늘에는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단풍의 계절에 고대하던 제9회 <사할린의 밤> 행사를 대구에서 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회장 하태균)가 10월 18일-19일 양일간 그랜드호텔에 영주귀국 한인 동포 어르신 150여분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문산 및 서울에는 다행히 행사의 첫날인 10월 18일 오전에 비가 내리지 않아 서울역에 모인 경기도 및 인천 거주 단체장들은 반가운 마음으로 대구행 열차에 탑승하여 익숙한 대구의 그랜드호텔에 잘 도착했습니다.

금년에 초대받은 5곳(김포 통진읍, 아산, 천안, 김해, 양산) 회장님들께서는 버스로 이동하다 보니 다소 늦게 도착하게 되어, 전국 사할린영주귀국동포연합회 임원단 간담회에는 유감스럽게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도 본 행사에 28개 단체 회장단 3분의 2만 (3/2) 참석하게 되어 다음 해에는 더 많은 회장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사할린의 밤>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민족통일 대구시 청년협의회 하태균 회장님을 비롯해 협의회 임원분들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일정표를 보는 순간, 그들의 노력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해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인상깊게, 또 즐겁고 감동스러운 내용으로 행사장을 장식했고, 특히 대구시 청년들의 봉사활동 정신에 깊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가 6시부터 시작돼 김포시, 천안시, 아산시, 양산시, 김해시, 대창양로원에 서 영주귀국 중인 한인 동포 어르신들과 대구광역시 안중근 행정국장, 민족통일 대구시협의회 도재영 회장, 대구광역시의회 박종필 의원, 전국사할린귀국동포협의회 권경석 회장, 수성구 김태권 구청장 등 지역별 회장단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모든 분들의 축사는 내용이 깊어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권경석 회장님의 축사는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동포들을 대신하여 짚지만 깊이 있는 내용과 우리 동포들의 역사가 담긴 내용으로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울컥하게 하였습니다. 이어 박영자 단장의 아리랑 노래와 부채춤을 시작으로 유공자포상, 감사장 전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던 대구 청년들에게 우리들의 고마워하는 마음도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제 기억엔 초기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거리감 때문에 오시기 힘들다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초대받기를 기대하시고, 또 못내 오시지 못해 아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국 28곳에 정착한 동포들을 한 번에

다 모시기에는 무리한 일일 수도 있지만, 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 하태균 회장님을 비롯하여 전 임원분들께서 행사 초대 문제로 고심하며 결정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개막식이 끝나고 축하공연이 있었는데 박영자 사할린아리랑무용단장님이 출연하여 영남아리랑, 울릉도아리랑 등의 멋진 댄스 공연은 인상깊었습니다. 특히, 박영자 단장은 러시아 사할린에서 행사 참석을 위해 중국에서 9시간 동안 체류하며 어려운 발걸음을 옮겨 우리와 함께하였습니다.

2부 행사에서는 오은비 신수진 명창의 공연, 인칸토 솔리스트 앙상블, 박수연 가수, 팀 뉴스테이션(스트리앤스) 공연까지 이어지며 흥겨운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또한 한인동포 어르신들과 한국의 흥겨운 노래를 함께 부르며 단체 사진 촬영 후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었고, 그 뒤 저녁식사를 하면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옛 친구들을 만나 서로 얼싸안고, 인사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세월의 흔적 속에서도 서로를 알아보고, 대화할 수 있음에 가슴 파스한 감동이 감도는 자리였습니다.

최근 3년 사이 비교적 젊은 층인 50대, 60대, 70대분들이 영주귀국 하시면서 행사장 분위기는 더욱 열정적으로 변했고, 저녁식사 후 지방에서 모인 분들과 신나는 노래자랑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김해, 천안에서 오신 분들의 노래 실력이 대단한 가운데, 흥겨운 음악과 노래에 맞춰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어깨춤을 추는데 마치 러시아 춤과 같기도 하고, 한국 춤 같기도 하면서 멋드러진 나름대로의 흥겨움에 들뜨는 분위기를 보면서 기쁜 행사를 기념하며, 좋은 추억으로 오랫동안 간직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실 때에는 한인동포 어르신들과 아쉬운 작별의 인사로 정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대구에서의 <사할린의 밤> 행사가 사할린에서보다도 많은 노력이 기울여진 듯한 느낌이 들었고, 행사 마무리 시간이 된 저녁 9시에 헤어져 뒤돌아서는 발걸음마다 진한 아쉬움이 보였습니다.

행사장을 벗어나 입구에서 누군가 “오늘처럼 재밌게 놀아 본 건 처음이다.”라며 큰소리로 하는 말을 듣고, “그래요?” 하는 반문에 “그럼요!” 하는 응답을 주고 받으며, 만족감이 가득한 얼굴 표정을 보니 덩달아 반갑고 기뻐했습니다. 하태균 회장은 내년을 기억하며 짧은 시간이지만 “고맙다, 감사하다, 잊지 않겠다.”는 짧은 말씀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엔 날에도 불편함 없이 호텔 안에서 행사 일정에 참석하다 보니 150명 참석자들은 편하게 잘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조식을 마치고, 섬유박물관에 둘러 함께 둘러보고, 단체사진도 찍고 나서 우리를 태운 관광버스는 대구 섬유박물관으로 이동해 한국의 섬유의 역사와 발전상을 둘러본 다음 각자의 도시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사할린에서의 대구의 밤 개최가 어렵지만 하태균 회장은 '대구 청년의 소명의식으로 사할린동포 후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여 우리를 초대해주신 대구 청년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민족통일 대구시 청년협의회 변영과 모든 가정에 항상 평안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주, 문산 거주자 리더아**  
**2024년 10월 20일**  
**(사진: 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 제공)**

### [우리말로 깨닫다]

## 한강이 온다

노벨문학상 작품을 원서로 읽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특히 영어가 아니라 작가의 언어로 읽는 것은 더욱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강 선생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노벨상 작품을 한국어 원서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매일 울며 썼다는 한강 선생의 말이 가슴 아팠습니다. 제가 읽기에도 어려운 글이었지만 외국인들도 한국어로 한강 작가의 글을 읽기 바랍니다. 시로 쓴 산문의 느낌이어서 감성을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광주 5.18 이야기와 제주 4.3 이야기가 비극이어서 오히려 공감대가 외국 독자에게도 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와 제주의 비극은 시대가 지남에도 해결되지 않고 때로는 도로 뿌옇게 되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비극은 엄청난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문학과 예술로 다시 태어나는 느낌입니다. 슬픈 아이러니입니다. 구한말의 동학혁명, 일제강점기, 분단과 한국전쟁, 군사독재, 산업화와 민주화는 다채로운 고통과 성장입니다.

'미스터 선샤인'이나 '파친코'라는 드라마, '토지'나 '태백산맥'과 같은 소설은 모두 시대에 빛을 쬐고, 한 시대를 빛냈습니다. 허나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쓰는 작가조차 눈물 흘리고 마는 애절한 고통이 작품을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친일과 반일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극심한 빈부의 격차에 따른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을 넘는 예술이 많이 나오기 바랍니다. 밝은 예술의 힘이 세상 속으로 전달되기 바랍니다.

한강 선생의 작품을 한국어 원서로 읽는 것도 좋지만 좋은 번역으로 만나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 한국문학 번역도 한류와 함께 점점 넓고 깊어 집니다. 우수한 영어, 일어 번역 외에도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기도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재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는 영어 번역을 재번역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즉 한국어를 전혀 못해도 번역이 가능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어 전공자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어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물론 한류나 한국 경제 발전에 힘입은 바 큼니다. 국내 대학에도 한국어학을 전공하는 훌륭한 외국인 제자가 많습니다. 박사도 많습니다. 좋은 번역의 기회가 있기 바랍니다. 미얀마어 번역, 태국어 번역, 라오스어 번역, 베트남어 번역도 더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유럽이나 아프리카어로도 번역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번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한국어를 번역하는 데는 초기에 큰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벨문학상을 계기로 긴 안목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노벨문학상 작품을 한국어 원서로 읽는 이야기로 글을 시작했습니다만, 한국어가 세계 속의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어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글학교가 더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노력이 있기는 하나 새로운 한글학교를 세우고,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세종학당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더 커지기 바랍니다. 한국어 전문가, 한국어 번역가 양성에도 더 큰 관심 기대합니다.

노벨문학상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좋은 동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강 선생의 수상을 계기로 한국어의 바람도 커지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강 선생께 고마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강 선생이 이제는 덜 아파하고 밝은 글도 쓰기 기원합니다. 앞으로의 작품이 더 기대된다고 하는데, 저 역시 기대하며 긍정적 작품의 한강이 오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강이 옵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유즈노사할린스크 버스정류장, 버스안내 전광판 40대 이상 설치

유즈노사할린스크 버스정류장에 낡은 안내판 대신 새로이 버스안내 전광판43대가 설치된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가 전했다.

새로이 설치된 버스노선 안내 전광판은 고급 전기부식 방지, 신속한 정보 전달, 장애를 가진 주민들을 위해 스테레오 음성 추가 장치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레닌나 거

리 버스정류장들을 따라 11번 구역, 시두마 부근, 도시 다른 정류장에 설치되었다.

승객 운송의 질적 향상과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한 작업은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지역 정부의 지원 속에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이 주도하는 교통개혁 시행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 사할린주, 11월1일부터 버스 요금 인상

2024년 11월 1일부터 사할린주 전 지역에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요금이 인상된다. 이러한 요금 조정안을 지역 에너지위원회가 채택해 10월 16일에 공고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시내버스 요금은 카드 결제 시 35루블리, 현금결제 시40루블리(기존 해당 요금은 30루블리와 32루블리였다.) 시외버스의 경우 1km당 2.9루블리+ 도시 세율= 시외버스 요금 적용. 카드 결제 시 5루블리 할인된다.

#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В 2024 году «Поезд Деда Мороза» впервые отправится в путешествие по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Празднично оформленная передвижная резиденция будет включать в себя несколько интересных вагонов:

- «Вагон-приемная» Деда Мороза, где он будет принимать гостей;
- «Сказочная деревня» — вагон, где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увлекательные игры и квесты;
- «Вагон-сцена» с «вагоном — кукольным театром» — здесь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новогодни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 «Вагон-лавка» с сувенирами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 «Вагон-буфет» и «вагон-ресторан» — для тех, кто хочет подкрепиться;
- спальные вагоны для команды помощников волшебника.

«Впервые дети с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увидят так близко Дедушку Мороза в его волшебном поезде и, конечно же, как и многие свои сверстники, поучаствуют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которые подготовлены помощниками Дедушки Мороза», — дополнил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директора «Российских железных дорог» Иван Колесников.

Совместный проект «Российских железных дорог»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ологодской области «Поезд Деда Мороза» стартовал в 2021 году. За 190 дней он посетил более 170 городов России, преодолев 78 тысяч километров с праздничной новогодней программой.

## сахалин 야간 달리기대회에 1500명 출전

〈2024-야간 마라톤〉 달리기 시즌 대규모 최종 대회가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에서 열려 올해 행사에 기록적으로 1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는 сахалин에서

달리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 체육부가 전했다.

달리기대회는 '인구통계학' 국민기획의 <스포츠는 생활의 표준> 연방기획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참가자들은 '스파르타크' 경기장에서 출발해 '고르니워즈두흐' 중간역 부근까지 이어지는 남서부의 아름다운 오솔길을 따라 달렸다.

대회에 1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었다. 결승선에서 참가 증서와 따끈한 차와 간식이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출발점으로 내려가서 음악 그룹의 공연과 이고리 마르티노브가 행사 협찬으로 제공하는 상품 추첨이 참가자 모두를 기다리고 있었다.

## На сахалинский Ночной забег вышли 1500 челове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ся грандиозный финал бегового сезона – "Ночной забег-2024". В этом году мероприятие собрало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 1500 человек, что говорит о растущей популярности бега на острове,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спорта.

Забег организован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порт – норма жизн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Демография".

Участники пробежали по красивому маршруту Юго-западного серпантина, стартовав от стадиона "Спартак" и финишировав у средней станции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К участию в забеге приглашались все желающие старше 10 лет.

На финише участников ждали сертификаты, горячий чай и угощения. После спуска к месту старта всех ждало выступление музыкальной группы и розыгрыш призов от партнера мероприятия Игоря Мартынова.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새고려신문 첫 호부터 애독자이신 이순귀 할머니!

음력 9월 22일 (양력 10월 24일)에 만 100세를 맞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할머니께서 걸어오신 길이 역사라고 보고 있고, 100세부터는 상수라고 부르는데 상수(上壽)의 뜻은 병 없이 하늘이 내려준 나이를 뜻합니다. 할머니께서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자녀와 손주와 증손주와 고손주들의 따뜻한 사랑을 듬뿍 받으시면서 행복한 삶을 즐기시길 기원합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 존경하는 이순귀 어르신!

### 100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노인정에 다니시는 이순귀 할머니께 늘 강건함과 밝은 마음을 유지하시고, 가족과 친지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시한인회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시한인회 산하 노인정 할머니·할아버지 일동

От всей души поздравляем нашу дорогую бабушку И Сон Ги с 100 летним юбилеем. Желаем хорошего здоровья, прекрасного настроения, любви от родных и близки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и "Клуб пожилых людей".

## 100세를 맞으신 이순귀 할머니! 이 뜻깊은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100세를 맞으신 대단한 사실에 고맙고, 어떤 길을 걸어오시면서 늘 친절함과 기쁨을 잊지 않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건강과 번영, 정신의 활력과 마음의 기쁨을 기원합니다! 할머니께 존경과 깊은 경애를 표합니다.

### сахалин한인연합회

### Дорогая бабушка Соня!

Сердечно поздравляем Вас с этой знаменательной датой - 100-летием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Это невероятный возраст! Спасибо, что прошли такой долгий путь и сохранили в себе доброту и радость.

Желаем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благополучия и бодрости духа.

Выражаем Вам почтение и глубокое уважение.

НКО АСК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25 г. — 692 руб. 9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l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옥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0-1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